

호남기업 소득 전국평균 절반도 안돼

광주 1억2200만원·전남 1억4600만원 근로자 총급여도 16개 시·도중 하위권

호남권 기업들의 소득(기업 순이익)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광주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총급여 또한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국회청문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기업당 평균 소득은 1억4600만원, 광주 지역은 1억2200만원, 전북은 6700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기업 평균 소득 3억8600만원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은 11위, 광주는 15

위, 전북은 1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작년엔 기업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억6400만원)이었으며, 전남은 울산의 기업소득에 비해 16.8%, 광주는 14.1%, 전북은 7.7%에 그쳤다.

기업 평균 소득 3억8600만원을 넘어선 지역은 울산과 서울(6억4600만원), 경북(5억9300만원)뿐이었다.

전국의 기업 소득은 전년 대비 5.9% 줄었고, 울산 또한 11.3%가 감소했지만, 전국 1위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전남은 전년 대비 330% 늘었지만, 전국 11위에 그쳐 지역 간 불균형을 보였다.

시·도별 기업 소득 순위는 울산과 서울, 경북에 이어 ▲대전(3억2100만원) ▲경기(2억9700만원) ▲경남(2억8100만원) ▲충남(2억6700만원) ▲세종(1억9000만원) ▲인천(1억8200만원) ▲제주(1억5000만원) ▲전남(1억4600만원) ▲부산(1억3600만원) ▲충북(1억3300만원) ▲대구(1억2300만원) ▲광주(1억2200만원) ▲강원(8700만원) ▲전북(6700만원) 순이었다.

또한, 이 의원이 국회청문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2011년 연말정산 신고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1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연말정산 신고자 수는 1554만 명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2817만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38만6000명이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448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2817만원)보다 369만원 적은 것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13번째였다.

전남지역은 33만9000명이 신고해 1인당 평균 총급여가 전국 평균보다 159만원 적은 2658만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3838만원에 달했고, 이어 ▲서울(3050만원) ▲대전(2946만원) ▲경남(2827만원) ▲경기(2764만원) ▲경북(2747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보다 낮은 곳은 ▲충북(2444만원) ▲제주(2336만원) ▲대구(2325만원) 등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빠와 함께 신나는 과학교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 10일 직원 및 자녀 200여명을 초대해 개최한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교실'에 참가한 아빠와 자녀가 복싱로봇을 함께 조립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효성 2분기 영업이익 작년비 160% 증가

분기 최고 실적...스판덱스·중공업 등 전부문 호조

효성이 올해 2분기 지난해보다 160% 이상 신장한 영업이익 실적을 거뒀다.

효성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매출 3조3577억원으로 분기 최고 실적을 거뒀고, 영업이익도 207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 전분기 대비 15.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60.8%, 전분기 대비 116.1%나 늘었다. 시장 기대치보다 20%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효성 측은 설명했다.

효성은 스판덱스 부문의 호조와 타이어보강재 부문 판매 증가, 중공업 부문 수익성 개선, 화학 부문의 성수기 진입 등 전 사업부문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섬유 부문은 스판덱스의 아시아·터키·중국지역 판매가 확대됐고, 판가 상승 및 원료 가격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수익성이 호조가 지속됐으며 나일론 및 폴리에스테르 수익성도 증가했다. 산업자재 부문에서도 타이어보강재 판매가 증가했고, 환율 상승과 원료가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높아졌다. 안전벨트용 원사, 북미·중국 시장의 에어백 직물도 판매가 증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하반기부터 특허담보 직접대출 시행”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9일 “올 하반기부터 ‘특허담보 직접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광주시와 무역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이 특허를 사업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도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올해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인터세이브 이강철 대표는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지방중기청 자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원솔루션 박정원 대표는 의료기 분야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비용 지원액 상향을 각각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지방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업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유망시장을 발굴하고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55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2 15 19 26 40 43	2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315,913,663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003,715	51
3	5개 숫자 일치 1,557,663	1,408
4	4개 숫자 일치 50,000	77,834
5	3개 숫자 일치 5,000	1,206,457

지역 대기업들의 의무절전 ‘나몰라라’

기아차·금호타이어 등 다수 사업장 위반 명단 포함

12일부터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가 예보된 가운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과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등 지역 대기업 사업장의 의무절전 규제 이행 실적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지난해 의무절전 규제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절감량은 애초 목표로 했던 280만kWh를 달성했지만 이행률은 지난 겨울철(89.4%)과 비교해 7%포인트 가량 낮은 83%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절전규제 이행률이 낮은 원인에는 일부 기업의 무관심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절전규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사업장 다수가 포함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5일간 진행된 절전규제 시행기간 중 낮새 모두 절전규제를 위반했으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4일, 곡성공장은 2일간 각각 절전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4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5일 모두 위반했다. 또 남양유업 나주공장도 5일 동안 의무절전에 동참하지 않았다. 적발기업들은 첫날 위반은 경도 조

광주상의 FTA지원센터

1기 인력양성 23명 배출

치로 면제되고, 이후 위반 날짜 하루당 5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 5월 말 발표한 절전규제 대책에 따라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전력 다소비업체들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씩 의무적으로 3~15%씩 전력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급한 전력 수급 상황에서 절전에 동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생각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대기업의 절전규제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서) 광주FTA활용지원센터가 지난 9일 광주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제1기 산업체 맞춤형 FTA 인력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양성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FTA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 지역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상의 광주FTA활용지원센터(062-350-5865)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완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도(하루) 100석	취향(하루) 90석	미취향(하루) 68석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un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돔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돔 육식** : 토종 참돔 / 참돔 찜통오리 / 참돔 삼계탕
- 한방 육식** : 한방 백숙 / 한방 찜통오리 / 참돔백숙 삼계탕

토종참돔 (9.9보, 식사술포함) 40,000원
참돔 백숙 38,000원

참돔의 효능 :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웃담 062)515-5757(웃칠웃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